

넷마블 신작 5종 장전을 하반기 집중포격!

넷마블 신작게임 5종 '두근두근'

미스틱파이터 오락실게임 느낌 그대로
엘로아 쉬운 키조작으로 화려한 전투
브릭포스 국내 최초 'UCC' 슈팅 게임
퍼즐앤나이즈 퍼즐+아이템성장 접목
월드히어로즈온라인 동서양 영웅 총출동

올 하반기 넷마블표 온라인게임들이 쏟아진다.

CJ E&M 넷마블은 상반기 가장 '핫'했던 게임 회사 중 하나. 상반기에만 '다함께 차차차'와 '모두의 마블' 등 두 개의 1000만 다운로드 게임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 게임사로 입지를 다졌다. 또 PC 온라인 자체 개발작도 꾸준히 내놓으며 서 퍼블리싱 뿐 아니라 개발도 잘하는 게임사로 이름을 알렸다. 넷마블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모바일·온라인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퍼블리싱 온라인 게임 기대작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미스틱파이터

●간편 조작만으로 화끈한 액션

먼저 화끈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인다. 2D횡스크롤 액션 게임 '미스틱파이터'(다담게임)가 바로 그 주인공. 예전 오락실게임의 느낌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화끈한 타격감을 살리기 위해 2D로 개발했으며, 고해상도 와이드 화면자원을 통해 액션성을 극대화했다. 이밖에도 움직이는 보트를 넘나들며 적을 추격하거나, 실시간으로 바닥이 무너지며 지형이 바뀌는 등 차별화 된 콘텐츠로 몰입감을 높였다. '미스틱파이터'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청신호를 켜 상황. 지난 1월 중국 최대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게임은 하반기 3차 비공개테스트를 거쳐 공개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엘로아'(엔픽소프트)도 주목할 만 하다. '엘로아'는 차별화된 개성과 그래픽 퀄리티를 동시에 갖춘 액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특히 간단한 키조작만으로 누구나 쉽게 화려한 전투액션을 즐길 수 있다. 던전과 필드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빠른 성장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도 강점으로 꼽힌다. '엘로아'는 하반기 첫 비공개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엔 없었던 독창적 게임도 풍성

독창성을 앞세운 게임도 있다. '브릭포스(이엑스이게임즈)'는 국내 최초 온라인 유저제작콘텐츠(UCC) 슈팅게임이다. 이용자가 직접 브릭(벽돌)을 이용해 제작한 맵에서 다른 이용자와 전투를 펼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SD캐릭터와 코스튬, 그리고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



상반기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넷마블이 하반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게임 기대작을 선보인다. 하반기 첫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내 최초 온라인 유저제작콘텐츠(UCC) 슈팅 게임 '브릭포스'.

사진제공 | CJ E&M 넷마블

를 만들 수 있는 높은 자유도가 특징이다. 하반기 첫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퍼즐앤나이즈'는 일본의 유명 게임사 세가의 자회사인 쓰리링스가 개발한 온라인 퍼즐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퍼즐을 풀면서 공략하는 퍼즐형 전투가 가장 큰 특징. 단순 캐릭터 성장이 아닌 레벨과 스킬, 특수능력이 아이템에 부여되는 아이템 성장형 게임이라는 것도 차별점이다. 하반기 첫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웅 매니지먼트 게임 '월드 히어로즈

온라인'(맥스온소프트)도 하반기 첫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게임은 역사적 영웅들의 카드 수집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전투를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임형준 넷마블 본부장은 "신작 부재로 활기를 잃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 참신함과 독창성을 앞세운 넷마블 신작들이 이용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성장동력인 모바일 게임과 함께 온라인게임 신작을 통해서도 넷마블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스포츠 지역 아마 최강자 가린다

27일부터 아마 e스포츠대회 지역예선
스타2 등 8개종목 총 상금 1억5천만원

국내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제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이하 2013 대통령배 KeG)' 지역대표 선발전이 2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지역선발전을 통과한 각 지역 대표 선수들은 10월4일부터 6일까지 천안에서 열린

는 그랜드파이널에서 최종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대회는 '스타크래프트2'와 '리그오브레전드', '스페셜포스' 등 PC온라인게임은 물론 '윈드러너'와 '다함께차차차' 등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 총 8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총 상금은 1억5000만원 규모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회 주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천안시, 그리고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회의의와 진행방식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성무용 천안

시장과 권택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배 KeG'는 1800만여명의 e스포츠 인구를 바탕으로 국민 여가문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내 e스포츠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은 전국 체전 형태의 통합 아마추어 대회.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에서 2009년부터 대통령배 대회로 승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표 아마 e스포츠 대회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천안시, 한국e스포츠협회, 전남과학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참여하는 '2013 대통령배 KeG 심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성무용 천안시장(왼쪽부터 두 번째)이 강현중 CJ 엔투스 감독(세 번째)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콘텐츠진흥원

(MOU) 체결식'도 함께 열렸다. 아울러 CJ 엔투스 프로게임단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김명근 기자

경제 브리핑

무설탕 초저열량 '레드불 슈가프리' 출시



레드불이 국내 시판 에너지 드링크 중 처음으로 칼로리를 크게 낮춘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슈가프리(사진)'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레드불 슈가프리'는 운동과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겨냥해 칼로리를 대폭 낮춘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다. 레드불 오리지널 음료의 기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열량은 250ml 한 캔에 7.5 Kcal에 불과한 국내 첫 무설탕 저칼로리 에너지 드링크이다. 250ml 기준 콜라 112Kcal, 사이다 110 Kcal, 비타민 워터 44kcal보다 낮은 열량이다.

KGC, 정관장 인삼사진 공모전 개최

KGC인삼공사(www.kgc.co.kr)가 고려인삼의 아름다움과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을

롯데리아 '피크닉팩 들고 캠핑' 이벤트

롯데리아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피크닉팩 들고 캠핑가자'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피크닉 매트가 포함된 피크닉 팩 2종(각 1만3500원) 구매 시 즉석 정품권 2매, 맛츠 세트와 핫크리스피 세트 구매 시에는 즉석정품권 각 1매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등

'더 뉴 스포티지R' 광안리·대천 찾아간다



기아자동차(주)는 7월 26일, 27일 경포대 해수욕장, 8월 3, 4일 광안리 해수욕장, 8월 10, 11일 대천 해수욕장에 더 뉴 스포티지R과 올 뉴 카렌스를 전시하고 미니콘서트를 열어 해변을 찾는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2013 기아자동차 썬머 비치 투어(사진)'를 실시한다. 차량 전시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통기타 가수의 공연과 토크를 돌려 당첨되면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증정하는 게임 이벤트 등을 준비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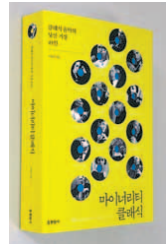
변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넥스, 카스 온라인2 '빅시티' 공개

넥스는 25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밸브 코퍼레이션과 제휴를 맺고 개발 중인 일인칭슈팅(FPS)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의 메인 콘텐츠 '빅시티'의 세부내용과 서비스 일정을 최종 공개했다. 빅시티는 주어진 공간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해 자유로 높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콘텐츠로 8월1일부터 시작되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의 베타 서비스에서부터 적용된다. 카운트다운 베타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입장권을 획득한 유저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매일 5000장씩 선착순으로 입장권이 제공되며, 넥스 가맹 PC방에서는 입장권 없이도 접속할 수 있다. 베타 서비스 동안 빅시티는 하루 2회 특정 시간대(14~16시, 20~22시)만 입장이 가능하다.

컬처박스

“2등이면 어때” 마이너리티 음악가의 삶



●마이너리티 클래식(이영진 지음 | 현암사)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억압받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유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933년 독일. 파시스트 정권은 성난 불처럼 타고르고 있었다. 인권이 유린되고 반정부 인사가 투옥되고 무고한 유대인들이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한 음악가는 이런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10여년 간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문화 행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다른 음악가들과 교류도 단절했다. 또 자신의 어떤 작품도 대내적으로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적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담아 훗날 ‘참회의 음악’이라 일컫는 음악 작품을 써내어 해외에서 공연토록 했다. 1935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협회에서 초연된 교향시 ‘미제레’가 그것. 강제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바친 곡이다. 그는 불의의 시대를 오롯하게 항거한 비타협의 예술정신, 그 자체였다. 주인공은 바로 카를 아마데우스 하르트만. “하르트만? 누구지?”하고 고개를 가우뚱거릴 수 있다. 괜찮다. 몰라도 참회할 필요 없다. 클래식 음악계의 마이너리티중의 한 명이니까.

클래식 거장들의 삶과 음악의 세계는 베토벤의 투쟁, 차이코프스키의 연민, 말러와 쇼스타코비치의 해학 등 ‘메이저리티’만 있는 게 아니다. 밤하늘의 못빛처럼 숨어서 빛나는 거장들도 있다. 다만 양지에서 화려하게 비춰지지 않았을 뿐이다. 음악평론가인 이영진 씨는 이런 숨은 보석들을 역사에서 발굴해 무대에 다시 세웠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현악연주가 등 마이너리티 음악가 49인. 사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생애를 그렸고 세심하게 음악세계를 짚었다. 또 에피소드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삶을 강렬하게 풀어냈다. 576쪽이라는 두툼한 책의 두께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좋고 읽다보면 추리소설처럼 출출할 잘 넘어간다.

세상은 ‘메이저리티’의 것이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꼭 주류계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메이저리티가 될 필요도 없다. 모리 슈워츠의 명언처럼 2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또 어떠한가. 진실을 보여 주는 삶이라면 마이너리티라라도 좋다. 마이너리티 음악가들의 삶을 읽고 유튜브에서 그들의 음악을 검색해 들어보라. 삶이 다르게 보일지 모른다. 주류주류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 그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기행문학의 최고봉 유흥준, 일본에 가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유흥준 지음 | 창비)

한국에 문화유산 답사 열풍을 일으킨 유흥준 교수가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1993년 ‘남도답사 일번지’를 시작으로 한 울 한 울 7권의 우리 땅 문화유산답사기는 저자 특유의 입담과 안목으로 답사기의 고전이 됐다. 20년 동안 330만 독자가 열광했고 한국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됐다. 수준 높은 문화교양서로 기행문학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그가 일본편 1권 ‘규슈·삿포로·한반도로부터’와 2권 ‘아스카·나라-아스카를 판에 백제꽃이 피었습니다’를 들고 우리 곁에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문화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바탕 위에 어떻게 일본문화가 꽃 피웠는지 흥미롭게 탐사한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인 지도 모른다. 그만큼 서로 밀접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의 시각은 문화의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저자가 말했듯 ‘한국 일본은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에서 각기 당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동등한 문화적 주주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편에는 일본의 역사 인물 문화 예술 등 일본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담았다. 특히 일본의 고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실제 답사여행을 위한 지도와 일정표도 부록으로 함께 실었다. 일본 답사여행을 꿈꾼다면 필수 아이템이 될 듯하다.

연재호 기자

부서도 직급도 없는데 1인 매출이 10억?



●메이난 제작소 이야기(카마다 마사루 지음·김욱 옮김 | 페이퍼로드)

잡 발난 회사도 있다. 사시(社是)가 ‘F=ma’란다. 뉴턴의 물리법칙이 사시라니. 대학시절도 아니고 그것 참. 입사시험 땀 물리 테스트가 주요한 관문이고 사장실은 최고급 시설이던 그곳에 사장은 없고 직원들의 회의용으로 사용한다.

사장은 복도에 책상 하나만 떨려 놓고 업무를 본다. 또 ‘아이디어란 발가벗은 몸에서 나온다’며 회사 옥상에 있는 사우나서 맥주를 마시며 토론을 벌인다. 게다가 사원들이 알아서 며칠씩 야근을 불사하고 퇴근이 늦어져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쯤 되면 급여제도도 정상(?)일 리 없다. 직원들은 서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급여를 책정한다. 부서나 직급도 없다. 각자 관심 있는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날라리’ 회사도 아니고 원. 그런데 이런 회사가 1인당 1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100명도 안되는 조직에서 1000여명의 특허와 실용실안을 등록했다. 일본 유수의 대기업이 앞 다퉈 이 회사를 배우려고 안달이다. 메이난 제작소가 바로 그곳이다. 창조경제가 화두인 현 시점에서 20세기에 이미 창조경영을 실현한 강소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불황해법을 찾은 만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회사도 메이난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연재호 기자